

# ‘정순신구 학폭’ 논란...의료계 “연쇄 가스라이팅 가능성”

### “피해자 죄책감 느끼는 등 ‘가스라이팅’ 당해” 2차 가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 방해 “정순신 아들도 가스라이팅 치료 필요할 듯”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이 알려지며 낙마한 가운데 학폭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PTSD란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겪은 후 발생하는 불안·우울증 등 심리적인 반응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학폭을 일종의 심리적 지배인 ‘가스라이팅’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가해자의 2차 가해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악화 또는 만성화되는 만큼 2차 가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은 타인

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일종의 정서적 학대다. 의료계에선 이번 정씨 자녀의 학폭 사건도 가스라이팅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인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는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족들도 힘들어하면 ‘내 탓인 것 같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가해자가 한동안 전학을 가지 않아 2차 피해가 진행돼 가스라이팅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씨의 아들은 물론 정씨도 분명히 (피해 학생에게)영향을 많이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폭 이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 만으로도 피해자는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가 같아 불안이나 죄책감이 가중되고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느낄 수 있어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또 학폭 피해자들이 주로 겪는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성장기에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대인관계 위축 등을 유발한다.

임 교수는 “20년 넘게 학폭 피해 학생들을 치료해보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면서 “괴롭힘을 당한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우울증을 겪고 헛것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리고 성인이 돼도 대인기피증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아들이 가한 언어폭력은 위계 관계가 아닌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만큼 피

해자가 느끼는 모멸감이나 수치심이 더욱 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오래갈 수 있다.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고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 학폭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10~20년 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가해자의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에 걸림돌로 작용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김인향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학폭 이후 학교와 주변 어른들의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학교도 적극 대처하면 피해자의 회복이 빠르지만, 가해자 부모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피해자의 PTSD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세상에 정의가 없다’, ‘어른들한테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신념이 자리잡을 경우 PTSD가 더 만성화된다”고 했다.

학폭은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

가 많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뿐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도 상담(치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교수는 “가해자도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씨의 아들을 가스라이팅 했을 가능성도 높아 아들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족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3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학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학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법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 교수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학폭 대응 컨트롤타워가 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야 한다”면서 “또 학폭 예방 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가해자 법적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가 충분히 구제 받고 보호자도 자녀를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피해자와 가족 모두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수류탄 투척’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화된 6일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목진지 훈련 도중 수류탄 투척 연습을 하고 있다.

## 새벽 시간 무인 점포 돌며 절도행각 40대 체포

새벽 시간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무인 점포를 털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무인 점포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초반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복구 한 무인 점포를 시작으로 지역 내 무인 점포 총 3곳에 침입해 이중 2곳에서 현금 38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물고 업무의 감시가 허술한 새벽 시간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리 쟁겨온 철근 절단기를 이용, 인형뽑기 기계의 현금 보관통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동중 전과로 최근 출소한 A씨는 생활고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한 것을 확인, 폐쇄회로(CC)TV로 추적해 이날 오전 5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긴급체포했다.

임형택기자

## 여수·광주 돌며 금은방 털 20대 구속영장 기각

여수와 광주를 돌며 금은방을 털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수경찰서는 6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사실은 소명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 각각 여수와 광주 동구 금은방 총 2곳에서 1400여만원 상

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을 가장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금팔찌 등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착용한 뒤 점주가 한눈을 판 사이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3일 광양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여수=김현근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